

Artist's Statement

최경문

유리(를 통해서 본)풍경, 그리고 향수병

모든 원형은 훼손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

원래의 모습은 흔히 왜곡과 단절의 모호함 뒤에 숨어있다...

존재하지만 왜곡되어 있고 가까이 있지만 단절되어 있는 실체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표현하는 것이 내가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원형은 사라지고 왜곡만 존재하는 순간을 피력하는 수단으로 나는 유리를 선택했다...

“유리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고 보이지 않는 벽이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나와 세상 사이에 유리의 보이지 않는 단절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유리를 통해서 만이 세상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해 보인다...

결국 유리의 성격이나 상황이 세상을 파악하는 결정적 도구가 될 것이다...

깨끗한 유리를 통해서라면 대상은 실재처럼 보일 것이고 왜곡된 유리를 통해서라면 대상은 왜곡되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재처럼 보이든 왜곡되어 보이든 유리를 사이에 두고 봄으로써 단절은 피할 수 없으며 내가 보는 대상은 반드시 허상인 것이다...

사라진 원형은 찬란한 왜곡으로 불확실한 원형의 추상성을 소박한 허상으로 대체시켰다...

우리는 그러한 허상을 실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허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때론 결정하거나 판단하게 된다...

과연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파악하게 하는 결정적 도구는 무엇이고 유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대상을 왜곡 또는 변형시키고 있을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정보나 지식들이 과연 실상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허상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실상은 원형의 추상성을 견인하게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허상의 진정성을 그리고 있으며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환영이다...

유리를 통하여 원형은 사라지고 변형과 왜곡만 존재한다면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한편 작품의 영역에서는 감상자가 미시적 공간에서의 허상의 진정성을 음미하는 것이 작가에게 큰 행복일수 있겠다...

유리에 투영된 왜곡된 형상이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그러진 모습과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합리적으로 변형하고 이기적으로 왜곡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나에게 나의 그림은 무척 소중한 것이다...

유리풍경 시리즈는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무거움을 시각적 경쾌함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향수는 왜곡을 욕망하는 도구이다”...

향수병은 유리의 시각적 왜곡과 더불어 후각적 왜곡의 욕망을 보여준다...

향수는 사람 그대로의 향기위에 새로운 향기를 덮음으로써 단절과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원형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

긍정의 왜곡이 불러온 아름다운 변형은 원형에 대한 선명성을 갈구하는 마음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엔틱 향수병은 향수를 병에 부어서 사용하는데 화려한 외형만을 보면 아름다운 향기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독이 든

향수를 상상한다면 결과는 왜곡 이상일 것이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선입견으로, 세상을 향한 수많은 의문들이 독이 든 향수처럼 나의 의식과 판단을 왜곡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아나운서의 젠틀한 목소리를 듣고 뉴스를 다 믿을 수 없고 위정자의 품격있는 제스처를 보고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왜곡은 변형된 진실이다...

물감은 내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친근한 일상 용품이다...

그것은 화가의 전유물로 화가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이다...

작품의 배경 혹은 향수병위에 흐르는 물감 또한 욕망을 상징한 것이다...

흐르는 물감은 왜곡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면서 왜곡을 거부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으로 욕망이 일상을 지배하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향수는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가져다주지만 근본적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돌은 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다...

원형 그대로를 지향하며 바다는 청정한 생태계로, 빙하는 본래의 얼음덩이로, 사회는 올곧은 세상으로 존재하기를 욕망할 것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욕망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진일보 시키고 예술을 견인하고 과학을 발전시킨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과도한 욕망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한 원인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욕망이 일상의 원형을 왜곡 시킨 것이다...

즉 이기적 욕망의 결과가 왜곡이다...

욕망을 통해서 본 세상은 왜곡된 원형을 보게 한다...

욕망은 일상을 지배해서 왜곡된 원형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나의 유리시리즈와 향수병시리즈는 바로 이러한 욕망과 왜곡의 관계성을 인지하고 이해하고픈 욕망에서 제작되었고 이러한 욕망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작업은 인간의 의식적 왜곡을 향수병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고 유리풍경의 또 다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나는 일상의 원형을 소망한다...

변형된 진실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의 향기를 만나는 소중한 설레임으로, 나는 그림을 이어나갈 것이다...